

Ferdinando Frega – Nando the Scribe

THE RHYTHM



Gillettenarrative.com

GILLETTE의 리듬

“아무도 결코 예견할 수 없었던 리듬”

열세 살에 음악을 공부하던 시절의 기억 가운데 하나는, 이제는 더 나은 삶으로 떠나신 Romolo 선생님이 늘 내게 하시던 말이다: “악보 이론은 집어치워 — 그게 영혼의 유일한 참된 표현이야.”

그러니 그것은 어떤 인지적 혹은 감정적 단계 안에서 숙고하는 일이 아니라, 그저 깊은 내면의 감정을 느끼는 일이었다. 아주 다르고, 무엇보다 깊이 개인적인 감정.

그러다 해가 지나면서 나는 나 자신의 박자 안에서 변화를 알아차렸고, 이상하게 느껴진 것은 리듬이었다 — 결코 같지 않고 언제나 다른 — 바람이 아니라 필요로 살아낸 리듬.

그때 나는 달리기를 멈췄다. 그러나 저녁이면 아직 어린 소셜 네트워크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성공과 부의 한가운데서 거의 아무도 모르게 더 나은 삶으로 떠난 사람들을 나열하는 영상과 마주쳤다 — 거기서 나는 아무도 결코 예견할 수 없었던 리듬을 발견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일을 해낼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나는 몰랐고, 끝이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이다.

나의 GilletteNarrative.com이 바로 이것이다 — 시계를 맞출 수 없는 그 리듬. 모두가 침묵 속에서 받게 될 효과를 그것만이 알기 때문이다. 어머니 Gillette가 언제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반갑다 — 이것이 나다. 여전히 당신과 함께, 그리고 영원히 글 속에, 잊을 수 없는 시간처럼.

Nando